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만유의 주재(찬48장/새32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학남 집사 2부/윤주원 장로 3부/이국선 장로 4부/이호민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작곡 한지현)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스가라 7:1-14 All together 다같이
4부/창세기 4:1-10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Return & Rebuild(11) 스가라 강해 영적 동맥경화증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말레 아난(2) 예배에 목숨을 걸라!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의 말씀 받은 그 날(찬209/새285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If you truly believed in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면 하나님이 두려웁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두려웁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잠 9:10). 심판과 지옥을 믿으니, 오늘 하루를 절제하며 긴장하며 삽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분의 자녀됨의 자유함도 있지만, 그 분의 말씀대로 행하실 심판을 생각하며 두려움도 생깁니다. 얼마 전 큐티인에서 묵상했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주님의 오심은 밤에 도둑 같이 임할 것이라 했습니다(살전 5:2, 참고/벧전 3:10). 이 말씀을 믿으면 신앙이 나태해지는 나의 모습에 겁이 덜컥 납니다. 가장 안 올 것 같은 시간에 오는 손님이 도둑입니다. 가장 방심하고 있는 시간에 도둑이 오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는 시간에 주님이 도둑 같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에 겁이 나서 나태함을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며 긴장의 끈을 바짝 당기게 됩니다.

매일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빨간 경고의 불이 들어왔는데도 겁을 먹지 않는 이유는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믿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부족한 인간인이라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과 심판을 믿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거짓말하는 죄, 돈에 깨끗하지 못한 죄, 말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 이런 못된 죄들을 지었을 때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가끔 교회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탄 경찰이 숨어서 교회 앞을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를 재면서 과속한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봅니다. 간혹 교회 주차장에 들어서는 목회자들도 과속하여 교회 주차장에서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카톡창에 조심하라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숨어 있는 경찰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속도를 줄이며 교회로 진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맞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가 없어져도 일정일확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 과속해도 겁을 먹지 않고 제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을 보는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평가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보는 날이 두려워 열심히 공부합니다.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시험을 준비합니다. 공부를 등한시 해서 시험이 있으나 없으나 두렵지 않게 사는 자가 되지 마시다. 말씀대로 믿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말씀과 기도의 긴장 끈을 당깁시다.

If God's Word is the truth, we ought to be fearful of God. If you believe in just and righteous God who will judge us, we ought to be fearful of God. That is why the Bible says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Pr 9:10). We live today with restraint and tension because we believe in judgement and hell. This is very obvious. We are liberated as God's children because we believe in Him. We also become fearful knowing that we will be judged according to His Word. Like the 1 Thessalonians passage that we meditated on during QT-In not too long ago, God will come like a thief in the night(1 The 5:2, Ref:1 Pet 3:10). If you believe in the Word, seeing ourselves becoming lazy in our faith will make us fearful. Thief comes at a time when he is least expected. Like thief comes at a time when he is not thought about, the Lord could come, like a thief, when we are spiritually absent. With fearful mind, we must hold tight to our tension through repenting our laziness and praying.

It's obvious that we must pray and train in the Word to keep our good spiritual health. But the reason we are not fearful, even when a red warning light of our spiritual state flashes, is because we don't believe that the judgment day will come like a thief. If you don't believe in hell, you don't feel guilty even when you sin. Because we are imperfect, we inevitably commit sin. However, if you believe in hell and judgment, we would quickly repent and return. Sin of lying, sin of unclean money, sin of inflicting pain on others with words... when we commit these sins, our hearts ache, cry out, repent and return.

Occasionally I see a motorcycle policeman hiding in our church parking lot to check the speed of passing cars. Traffic ticket with hefty fine is given out to those driving over the speed limit. In the past, some of our pastoral staff were caught speeding and received tickets as they entered the parking lot. Kakao talk message is quickly sent to others to be careful. Knowing the possibility of a hidden policeman, we reduce our speed and carefully enter the church. However, God's Word is not just about possibility. Even if the whole universe disappeared, God's Word never changes. It comes true. If you don't believe in His Word, you will live as your heart desires. You will not fear whether you speed or not.

Students who don't do well in school do not fear testing. They are not interested in their test assessment. However, good students study hard in fear of testing. They give their best to prepare for testing because assessment is important to them. Let's not neglect studying and live without fear whether there's testing or not. Let's believe in the Word, encourage one another, pushing and pulling to keep the faith. Let's tighten our string of tension with the Word and prayers.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영적 동맥경화증

(속 7:1-14)

적용하기



1. 요즘 병은 혈관이 막혀서 오는 병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 듯합니다.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나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신 적이 있다면, 그 전조 증상은 어떠합니까?

2. 성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즈음에 베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있으며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2-5절, 참고/왕하 25:8-9, 왕하 25:25, 마 6장)


3. 하나님은 대답 대신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하셨으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5-6절)

4. 영적 동맥경화의 전조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 1) _____ (7, 11, 12절)
 - 2)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_____ (11절, 참고/느 9:29, 호 4:16)

5. 하나님의 영적 동맥경화 치료방법은 무엇입니까?
 - 1) _____ (12절, 참고/ 히 12:6-8)
 - 2) _____ (13절, 참고/ 잠 1:27-28, 사 1:15)

6. 영적으로 막힌 혈관을 뚫는 방법을 생각하며, 복음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벧전 1:18-19, 벧전 2:24)


‘헵시바 일천’으로 모입니다!



**헵시바 기도회에
일천명이 모여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Always be there!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장소: 본당



헵시바 새벽기도회

기도가 곧 선교

2023년 초 엘리야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Always be there!(항상 거기에 있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새벽 해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기도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사도들은 항상 기도에 힘쓰고 깨어 있으라 하였습니다(골 4:2).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하였습니다(행 4:1).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사명이요 부르심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토요일 헵시바 기도회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예외는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1세, 2세, 3세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헵시바 기도회에 일천 명이 모여 기도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선교지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가 곧 선교입니다. 갈 수 없다면 기도합니다. 기도는 베델교회 종직자들의 사명입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기도의 사명을 다합니다. 기도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함께 부르짖습니다.

연초에 Always be there! 항상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겠다고 부르짖었던 다짐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이충경 목사



금다식 사역

1. 금다식 사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금다식 사역이라고 하면 "그것이 뭐가요?"라고 물으십니다. '금'요일 '다'음세대를 위한 '식'사제공이 금다식 사역입니다. 어와나 선생님들과 자녀들, BYM(영어 중고등부), CIM(한어 중고등부), C2C(워십댄스), 그리고 예살 청년들 200여명이 금요일 여러 예배로 모일 때 정성으로 만든 집밥 같은 음식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그들의 영적 양식을 열심히 채워 주실 때 금다식 사역은 그들의 육적 양식 즉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2. 어떻게 사역이 이뤄지고 있나요?

금다식 사역은 올해에 임명된 사역권사님 두 분, 안수 집사님 두 분, 그리고 자원해서 섬기는 권사님, 집사님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역권사님들께서 메뉴를 정하셔서 한 달

전에 포스팅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고 준비합니다. 모든 봉사자분은 기도와 QT로 준비하셨다가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함께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로 또한 주 사역을 잘 마친 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3. 감사의 순간을 나눠주세요.

준비한 양보다 인원이 많이와서 음식이 부족할까 염려될 때, 많은 양을 만들다 보니 음식 조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해결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자녀들과 청년들이 교회 뜰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웃으며 기쁘게 친교를 하는 모습과, 식사 후 자녀들이 즐겁게 뛰어 놀며 예배와 찬양을 하는 모습을 매주

보는것이 정말 큰 은혜와 감사입니다. 그리고 가끔 와서 "정말 맛있어요"라고 감사를 표해주는 자녀들이 있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4. 금다식 사역을 통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다음세대가 금요예배와 말씀 공부를 통해 영적으로 건강하게 양육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이어가며 어디에서나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와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대상 자녀가 있으시면 금요일 모임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황세현 장로 (949)391-9497

수요일에

온전한 삶으로의 여정-시즌2 '남은 이야기'

Paul Harvey는 유명한 방송인으로 'The rest of the story'라는 일일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짧은 이야기와 뉴스를 결합한 형태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인기의 비결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사람들을 다루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잘 알려진 말씀에 가려져서 종종 무시되는 인물이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를 구한 엘리사, 불치병으로부터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어릴 적 교회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주변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때로는 주인공들에게 집중이 되어 실제로 말씀의 큰 은혜의 역할을 하는 인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인공만 주목받는 이 세상이지만, 사실 성경은 수 많은 인물이 얽혀있고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시즌1은 주변 인물인 '나아만의 어린 여종'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상시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소녀가 사실은 복음을 선포하고 한 영혼을 구하고 온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조약돌이 파동을 일으키며 퍼져나가듯이 이 소녀가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말씀 여행 시리즈에서는 지난 시리즈에서 다루지 못한 '남은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번 4주를 마치면서 가장 큰 아쉬움은 게하시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한 것입니다. 게하시는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엘리사 선지자의 수 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나 큰 시험에 빠져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 후반에 다시 등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몇몇 주인공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다 끝내지 못한 '남은 이야기'를 나누며, 게하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용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승락 목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한국에서 10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와 얼바인에서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와서 공부하던 큰아들과 뒤에 온 작은 아들이 함께 모여 얼바인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함께 다닐 교회를 찾아 보다가 베델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결정을 하고는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마친 후 담당 목회자님께서 저희 집에 심방을 오셔서 셀도 배정해 주셨



습니다. 그렇게 처음 배정된 셀 모임에서 초청을 받아서 간 곳은 셀목사이신 김 권사님 덕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교제와 나눔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더 편안했고 웃음이 멈추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식구를 만나서 감사했고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셀식구들과 함께 교회 부업에서 섬김을 체험했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배웠습니다.

셀식구들과 매일 큐티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카톡에 올리며 말씀을 나누며 묵상했고 매주 줌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셀목자님

이 교회 소식들을 들려주시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셀모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처음으로 가보는 특별한 식당에서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못다 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로 채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셀목자님과 함께 AWANA 를 섬기고 있습니다. Together 셀식구들을 만나게 이끌어 주신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남은 우연이 없고 모두 주님의 뜻과 섭리며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베델교회에 와서 행복한 만남과 나눔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에스더 집사

어린이 여름성경학교(VBS)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



48명의 아기와 50명이 넘는 보호자들이 함께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시작부터 찬양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놀라웠습니다. 아기들은 귀여운 몸짓으로 찬양팀의 울동을 따라 합니다. 찬양을 따라 하는 아기들을 보며 어머니들 또한 예배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천국 잔치 같았습니다. 예배소서 6장 14-18절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첫날은 Two Kingdoms, 둘째 날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셋째 날은 방패와 투구, 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 전도사의 질문에 큰 소리로 답하는 아가들의 음성이 귓가에 울립니다. 전해진 말씀이 아가들의 가슴에 새겨져 평생을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라 기대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들의 헌신과 주님의 사랑과 역사가 넘치는 귀한 VBS였습니다.

이진영 전도사(영아부)

Kingdom, Keepers, Huzzah! 처음으로 영, 유아부 VBS를 섬기게 되어 걱정되면서도 오랜만에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설렘이었습니다. 작은 몸짓으로 하나님께 울동과 찬양을 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VBS 주제는 'Keepers of the Kingdom'입니다. 아이들은 VBS기간 동안 "I'll go to God's Kingdom, Stand strong in the Lord"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러한 소망이 항상 마음 깊숙이 자라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용사로 늘 당당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VBS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협력과 BYM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TA로 봉사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였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수고로 힘

을 얻었습니다. VBS를 통해 아이들과 각 가정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기도를 얻었습니다.

위우정 집사(유아부)

2023년 VBS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밝은 미소와 기대감을 가득 머금은 표정으로 매일 교회로 뛰어오던 아이들의 얼굴들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올해 VBS에는 330명의 아이와 200명의 봉사자가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은 첫날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큰소리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각 스테이션에서는 그동안 스테이션 리더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했던 레슨들을 배우며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하고 TA 선생님들이 준비해 준 스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스테이션을 재미있게 마치고 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은 후 목사님의 재미있고 능력 있는 성경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VBS가 끝날 때가 되자 아이들은 여섯 가지 전신갑주를 모두 암송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지난 4일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얼마나 강력히 일하셨는지 아이들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봉사자와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풍성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가영 전도사(K-1)

Stand strong in the Lord!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 나가는 우리 자녀들의 힘차고 능률한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특별히 올해 VBS는 새로운 시도와 변화들이 있었고 덕분에 각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아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함박웃음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ই블 스테이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느꼈다는 학생의 고백 "It was like the Word of God coming to life!" 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승진 전도사(유년부)

베델교회학교의 꽃, VBS 여름 성경 학교가 6월 끝자락에 피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Keepers of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의 용사로 살아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박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전신갑주의 뜻과 의미를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팀, 식당 사역팀, 행정팀, 이벤트팀 등등 뒤에서 힘써 주신 많은 분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3일째에는 강단으로 초청하는 alter call을 통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닌, 학생들 자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결단의 시간이 저희 마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4개월 동안 준비하며 걱정도 많았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새 일을 행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연 전도사(초등부)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영어중고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영어중고등부: 김한나(Hannah)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송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아기학교: 김재은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영어양육/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파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영어중고등부: 이사라, 최소영 인턴
- 방송실: 김앤드류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경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소망부 VBS 봉사자 모집

해마다 열리는 소망부 VBS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여름 천국 잔치입니다. 'Keepers of the kingdom'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3 여름 VBS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 지십시오"(엡 6:10)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천국의 백성과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모님들의 기도와 기대 가운데 단 며칠 만에 모든 학생의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등록이 마감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VBS에 참여해 주셨던 봉사자들의 사랑의 헌신 때문입니다. 베델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한결같이 베델교회 봉사자들이 너무 따뜻하게 섬겨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델교회 소망부 VBS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자 노력하시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망부 아이들은 특별히 많은 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에게 한 분 이상의 봉사자가 필요하고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VBS 기간 풀 타임으로 도움이 힘드시면 파트 타임으로도 오셔서 섬겨 주시면 소망부 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전 12:26) 말씀처럼 소망부 VBS를 통해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영광을 얻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부 아이들의 천국 잔치에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일시: 7월 18일(화)~7월 21일(금) 오전 9시 - 오후 2시
- ▶ 장소: 베델교회 체육관, 할렐루야 채플, EM Chapel, 유년부실(점심 식사)
- ▶ 신청 방법: 야외 부스, 교회 웹사이트 www.bkc.org
- ▶ 문의: 박종민 장로 (949)742-1285, 박정민 전도사 (909)319-8023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7월)	7/9:	①부-마상오	②부-이 청	③부-곽태일	④부-임제이슨
	7/16:	①부-박관수	②부-김건성	③부-권조원	④부-권앤디
	7/23:	①부-박성규	②부-김도석	③부-김근수	④부-채은진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7월)	7/8: 김정우B	7/15: 김정범	7/22: 김정욱	7/29: 김종곤
강단꽃(7월)	7/2: 림학철, 박세환, 조궁	7/9: 김성희, 이 청	7/16: 김창남, 정민주	7/23: 서진하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한우광(한의학), 간호사-박필연 다음주 | 의사-윤현돈(혈액암과), 간호사-윤성자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베(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허바(배안), 이상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선교 걱정현금(매월 첫째 주일)- 노란색 봉투로!** 오늘 주일은 각 성도님께서 올해에 걱정하신 선교현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노란색 현금봉투를 사용하셔서 현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 **헵시바 일천으로 Always Be There!**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가 곧 선교입니다. 헵시바 기도회에 일천 명이 모여 선교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Always be there!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4면 참고)
일시/장소: 매주 토요일 6시, 본당

◆ **베델 수요예배** 매주 뜨거운 기도와 말씀의 은혜로 드러지는 베델 수요예배가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러집니다. 이번 주부터 정승락 목사의 '온전한 삶으로의 여정-시즌 2 남은 이야기'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모두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어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제7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 금년 신학강좌는 '장애인 신학-신학으로 이해하는 장애인'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장애 속에 깃든 하나님의 고귀한 뜻과 섭리를 발견해 수많은 장애인에게 소망을 주고, 교회가 각성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7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9시 30분 (2 강좌)
7월 15일(토) 오전 6시-오후 12시 (4 강좌 및 Q&A)
강사: 이재서 교수(총신 교수/총장 역임, 현 세계밀알협회 총재)
정승원 교수(총신 교수/부총장 역임, 현 세계밀알협회 이사)
김정기 목사(현 북가주 밀알선교단 단장)
장영준 목사(현 시애틀 밀알선교단 단장, 미주밀알선교단 부총단장)

◆ **주차 안내** 비전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비전센터 뒷편 영어 회중(BGC) 주차장과 중국 교회 쪽에 교회학교 자녀들을 Drop off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다음 예배 참석자들을 위해서 꼭 비전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튀르키예 지진현장 구호 단기팀 모집** 국제적인 긴급구호팀이 철수한 이후 생존자들의 생필품 공급, 임시 처소, 질병 관리, 영적/정신적인 트라우마 등 많은 도전과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서 섬길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최: SWM 실크웨이브 / 프로젝트 명칭 CES) 선교 기간: 9월 11일(월)-20일(수)
참가비: 개인당 하루 \$50-70(국제/국내 항공비, 여행비자, 여행자 보험 제외)
교회에서 소정의 경비가 지원 됩니다.
등록처: 본당 앞 코트야드, 교회 홈페이지 (7월 3째주까지 모집합니다)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 **소망부 VBS 봉사자 모집** 7월 18일(화)부터 열리는 소망부 VBS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7면 참고)

◆ **교회학교 교사 모집** 주일 예배 교사로 섬겨 주실 분들을 모집 합니다. 특별히 영아부, 유년부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2부와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K-1 섬김/문의: 2부 예배 한어 혹은 영어 교사, 정가영 전도사 (949)-922-3234
유년부 섬김/문의: 3부 예배 한어 혹은 영어 교사, 이승진 전도사 (626)487-1477
초등부 4-5학년 섬김/문의: 2부/3부 예배 영어 교사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입학 안내부스** 기독교 고전교육을 통해 탁월한 학문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로 키우는 BCA를 소개하기 위한 안내부스가 3부 예배 후 비전센터 앞에 준비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입학대상: 킨더-7학년)

◆ **아기학교 가을학기 개강 안내** 올 가을학기 아기학교가 13주(8월 24일-11월 16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7월 16일(주일)부터 본당 앞 부스에서 등록이 시작하며 40명 정원(선착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등록 대상: 15-48개월
문의: 김경자 권사 (949)351-6123, 김재은 전도사 (949)923-7094

◆ **CIM 한어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Ignite'**
기간/장소: 8월 10일(목)-12일(토), 베델 갈릴리 수양관
등록/회비: CIM 단체 카톡방 구글 링크, \$120
문의: 장세인 집사 (949)910-1670,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 **BYM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Overflow'**
기간/장소: 8월 7일(월)-10일(목), Forest Home Christian Camp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Sarah Lee 인턴 (949)402-7049

◆ **교역자 동정** 7월 1일(토)부터 영어 고등부(BYM High)에 김한나 전도사가 부임하였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몽골 단기선교 파송기도가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7월 2일(주일)-10일(월)입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선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하해 주세요** 예삿 조재현 형제/김균주 자매 가정 연서(Ariel)가 6월 20일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김영진 성도님(김찬용 집사/김원자 권사의 장남)께서 6월 24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1.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most diseases these days are caused by blockage of the arteries. If you ever had stents placed or had a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 what were the symptoms that made the procedures necessary?

Apply to Life



2. With the approaching completion of the Temple, what was the question that visitors from Bethel asked and what was the reason for the question? (v.2-5, Ref: 2 Kgs 25:8-9, 2 Kgs 25:25, Matt 6)

3. God answered the question with a question of His own. What was the question, and what does it mean? (v. 5-6)

4. What do you think were the symptoms leading up to the spiritual arteriosclerosis?

1) _____ (v. 7, 11, 12)

2) Meaning of "did not turn their backs"? _____ (v. 11, Ref: Neh 9:29, Hos 4:16)

5. What were God's treatment method for spiritual arteriosclerosis?

1) _____ (v. 12, Ref: Heb 12:6-8)

2) _____ (v. 13, Ref: Prov 1:27-28, Isa 1:15)

6. Let us be blessed by the power of the Gospel to renew us, as we think of the methods of treatment for blocked spiritual arteries.

■ **Song in Response:** O Happy Day, That Fixed My Choice